

가속도 붙은 광양 세풍산단 조성

광양만권의 최대 현안 사업인 광양 세풍 일반 산업단지(이하 세풍산단)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4월에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Cluster) 구축사업'이 포함되며 이어 5월에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제 지정하고 PF(Project Financing) 자금 확보에 나서는데 등 개발이 본격화됐다.



올해 토지보상 거쳐 하반기 중 착공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새 개발사업 시행자도 지정 인프라 탄탄하고 분양가 저렴 광양만권 발전 획기적 견인



세풍산단 조감도

세풍산단 조성사업은 기존 개발사업자인 (주)광양개발과 투입비용 정산 문제로 지연됐으나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세풍산단PFV(주)가 지난해 말 설립되며 올해 토지보상을 거쳐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세풍산단은 총사업비 5219억원을 투입해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3.0km²(90만 평)에 오는 2020년까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형 소재 산업 R&D 등을 집중 육성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풍산단 내에 추진되는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복합 R&D)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전남도·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광양시 주체로 사업기간 5년(2015년~2019년)에 걸쳐 총사업비 1500억원(국비 1064억원, 지방비 323억원, 민자 113억원)이 투입된다.

기능성 화학소재 사업은 전기·전자, 자동차, 2차 전지, 의약품 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기능(편광특성·이차전지 분리막)을 가진 화학소재를 의미한다.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분야 세계 최고의 완제품 경쟁력을 강점으로 기능성 화학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절호의 기회가 되는 사업이다.

세풍산단은

- 광양읍 세풍리 일원 3.0km² 규모...5219억원 투입 2020년 완공
-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중심 미래 소재산업 R&D 집중육성

9조6000억원	2조6000억원	4만8000명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그동안 만성적 대일(對日) 무역적자 품목인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수입 대체와 함께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분야로 경제계 과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세풍산단은 동북아의 관문인 광양만권의 완벽한 교통망과 산업 인프라 및 맞춤형 산업단지를 활용해 부가가치형 미래 소재산업으로 육성될 조건을 갖춘 최적지로 평가돼 왔다.

소재시장은 세계적으로 소수의 선진국이 핵심 기술력을 무기로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재산업의 발전이 취약해 대일 무역적자의 약 42%가 소재분야에서 발생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분야의 핵심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는 등 대일 무역적자적자의 주요인이었다.

세풍산단내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저부가가치, 장치산업 중심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능성 화학소재를 활용한 신산업, 고부가가치 사업체제로 재편이 가능하다.

◇광양만권 경제 활성화 견인 기대=

이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확대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 발전은 물론 기능성 화학소재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또한 향후 20년 동안 지역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 9조6000억원·소득 2조6000억원을 유발하고, 4만8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세풍산단 단지 조성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광양제철소, 여수 석유화학단지, 컨테이너 부두와 같은 산업 인프라를 갖춘 천혜의 입지 조건과 더불어 저렴한 분양가로 경쟁력까지 갖춰 향후 성공 가능성이 크다.

세풍산단은 1차 산업 외에도 부품소재, 신소재 산업 등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광양·광양제철과 함께 광양만권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견인차가 될 전망이다.

이희봉 광양 경제청장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이탈리아의 섬유단지처럼 특정지역에 산업과 상호 연관된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미래 산업집적(産業集積=클러스터) 지역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지역내 화학소재 연구그룹과 협력해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는 중심지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풍산단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 세풍산단PFV(주)를 지난해 말 설립하며 책임분양률(3개사 4000억원)은 ▲포스코건설 38.8%(1550억) ▲미래에셋 37.5%(1500억) ▲광양경제청 23.7%(950억)을 투입해 조성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친환경 재배 '백운산 토종 복분자' 내달 초 본격 출하

광양 백운산 토종 복분자가 이달 말 한 국인삼공사와의 계약 판매분(미숙과) 수확을 시작으로 7월 초 본격 출하된다.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지난 2007년 국립 산림과학원과 신품종 시범재배 실시계약 및 재배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한 후 봉강면 일원 재배단지(10여ha)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3여t을 첫 수확해 1억 3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후 매년 생산량과 판매액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27t(4억1000여 만원)을 생산했다.

올해 역시 기상여건이 좋아 지난해 대비 단위면적당 30%가량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산 토종 복분자는 유



통 과정의 위생과 보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파우치(지퍼백)에 포장해 1kg 1만 8000원에 택배와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문의(봉강면 형제리병장 정보화마을(061-763-8277, br.invil.org)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만권경제청, '코트라 IK'와 해외기업 유치 협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GFEZ)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K(Invest Korea·대표 한기원)과 손을 잡는다.

KOTRA IK의 유치전담 직원 8명이 최근 광양 경제청과 관할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광양만권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이들은 광양경제청에서 현재 추진중인 산단 개발현황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양지구 등 5개 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사건>

앞서 이희봉 청장은 지난날 한기원 IK 대표를 방문해 'GFEZ 2020 비전'에 대한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IK 전문위원과의 개별 상담, 외국인 투자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양경제청은 앞으로 IK와 협력해 투자유치 담당자들의 현장 방문으로 잠재 투자기업 유치 활동과 실현가능한 프로젝트 발굴 및 소통체계를 강화해 업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올해 개원한 '광양학사' 입학생 16명 추가 모집

광양시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광양학사' 입학생 16명(남자 7, 여자 9명)을 추가 선발한다.

'광양학사'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광양출신 학생의 주거문제 해결과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개원한 기숙사이다.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립된 기숙사는 건축규모 1653.60㎡(지하 1층·지상 7층)로, 30실에 60명(남녀 각 3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44명이 입사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광양학사'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기숙사에서 서울 주요대학까지는 1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하다.

입사 희망자는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와 읍·면·동사무소에 원서를 받은 후 작성해 광양시청 교육청소년과(061-797-2319)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 평가 기준은 선착순이며, 내년 2월말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효창건설(주)

전문건설업
건축물 조립공사업
지붕판금
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

효창건설(주)
대표이사 송재무
T (061)792-5577 H 010-3622-7755
위치 : 광양시 강변로 41 (광영동)